

투데이

여수박람회 가면 세계 스타들과 깜짝 만남



제시카 고메즈

파비아운



쿠사나기 쓰요시



이언 소프

제시카 고메즈·초난강 등 국가별 홍보대사 대거 방문할 듯

여수세계박람회에 가면 제시카 고메즈와 이언 소프, 초난강(쿠사나기 쓰요시) 등 세계 각국의 연예인과 유명인사를 만나는 특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박람회 참가국별로 '국가의 날'을 지정, 자국의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데 이날 각국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스타와 유력인사들이 대거 여수를 찾게 때문이다. 일본은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인 'SMAP' 멤버 쿠사나기 쓰요시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일본 내 대표적인 '한국통' 연예인인 쿠사나기 쓰요시는 이름의 한문표기를 한글로 읽었을 때 '초난강'으로 발음돼, 국내에서는 이름 대신 초난강으로 더 인기를 모으고 있다. 10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운 그는 최근 일본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한국어로 "모두 여수를 향해서 노력합시다"라고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한국에서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프랑스인 파비아운에게 홍보를 맡겼다. 5년 전 여행을 왔다가 한국에 정착한 그는 드라마 '제중원' '역전의 여왕' '시크릿 가든' 등에 출연해 얼

굴을 알렸고, 국내에서 모델과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호주 출신 모델 제시카 고메즈도 자국 홍보에 나선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싱가포르의 어머니와 포르투갈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지난해 국내 모 방송국의 방영연예대상 소비라이터부문 인기상을 받기도 했다. 호주는 또 자국의 수영 영웅 이언 소프를 홍보에 투입했다. '인간 어뢰' 이언 소프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 3관왕, 2004년 아테네올림픽 2관왕 등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5개를 따고 세계신기록을 13차례나 작성했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각국 홍보대사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가의 날'에 맞춰 홍보대사들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보여 유명인과 각국의 문화 행사를 한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 박준영 전남지사 12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에게 지방분권 정책을 총선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지방분권, 총선공약에 반영해야”

박준영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여야에 건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장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2일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등을 만나 지방분권 과제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준영 지사와 부회장이 김법일 대구시장 등은 이날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할 지방분권 정책으로 ▲국회명목 대표 등을 만나 지방분권 과제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4대 분야

를 제시했다. 박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고, 지방분권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면담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대해 늘어난 지방 재정부담을 설명하고, 영유아 정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줄 것도 건의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문화 얼라이언스'·전남 '그린시티'로

내륙권 초광역개발 시범사업 신청

광주·전남을 비롯해 내륙권을 초광역적으로 개발하는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6일부터 3월 9일까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륙권 초광역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총 9개의 연계협력사업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내륙권 초광역 개발사업은 광주~대구 연계협력권 백두대간권, 내륙권 단산업권 등 3개 권역의 공유·특화자

원을 활용해 초광역적 특성화 벨트를 구축하는 지역발전 정책이다. 대구~광주 연계협력권에서는 광주(대구·경북·전남도 공동)가 영·호남 공동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상생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문화 얼라이언스(Alliance) 사업을 신청했다. 대구(광주·경북·전남도 공동)는 대

구·경북의 정보기술(IT) 융복합·그린에너지와 광주·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연계해 그린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들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다음주중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심사한 뒤 이달 말 시범사업지를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별·지역별 예산 등에서 총 20억~30여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사업성과를 분석해 우수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도 농어촌공공 16일 J프로젝트 협의

광주-대구 '치과산업 벨트' 예비타당성 조사

전남도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사업부지인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를 놓고,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한국농어촌공사와 관계 개선에 나선다. 12일 전남도는 “오는 16일 전남도청에서 농어촌공사와 협력 사업 추진 대책 협의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농어촌공사 관계자와 전남도의 농림식품국·농업진흥청·투자정책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투자정책국은 J프로젝트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와 간척지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농어촌공사와 어떤 협력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또 녹색성장사업과 건설방재국은 저수지 주변 등을 활용한 우수 경관지역 은퇴도시 조성사업과 태양광발전사업 등 양 기관의 현안 사업들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도는 농어촌공사 소유인 영암군 삼호읍 일대 866만1000㎡에 골프장 4.5개(81홀) 및 대규모 스포츠·레저 단지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양 기관이 감정평가사 선정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미래형 치과산업 벨트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2012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미래형 치과산업 벨트구축사업'은 광주의 부품소재 산업과 대구의 치과 의료기기 산업을 활용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016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에는 치과용 소재·부품생산기술지원센터, 대구에는 첨단치과기기 R&D센터가

구축되며 기업역량 강화 및 R&D사업으로 58개의 단·중장기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올 상반기에 진행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내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오는 2018년 이후 수입대체 60%, 아시아 시장 점유율 25%, 세계시장 8%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생산비 3150억원, 부가가치유발 1630억원, 고용유발 2839명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

광주시, 100만㎡ 지정 2014년까지 70억 투입

광주시 첨단지구 영산강변 공원 100만㎡가 '광주 시민의 숲'으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12일, 북구 오룡동 영산강변의 대상공원 일원 100만㎡를 '광주 시민의 숲'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숲'은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 광주의 상징 숲으로, 대상공원(36만㎡)과 체육공원(17만㎡)은 생태숲으로, 그리고 영산강 일부 수변지역(47만㎡)은 경관구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물과 숲이 어우러지고 습지와 연계되는 지리적 조건을 활용, '시민의 숲'을 나무와 물·조류·여류

가 함께하는 자연친화형 생태숲으로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70억원을 들여 나무 30만 그루와 화초류 150만본을 심고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대상공원은 기존 수림대를 활용, 숲 속에 오감체험 생태탐방 오솔길 5.0km와 잔디 및 휴게광장, 피크닉장 등을 만들고 주변에는 원추리와 꽃무릇 등 화초류를 심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숲을 조성하게 된다. 대상공원 독길에는 목백합 등을 심어 강변을 따라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육공원은 가족단위 및 동호인들에게 운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동장 주변에 키가 크고 울창한 수종을 심어 쾌적하고 녹음이 있는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 숲'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영산강변에는 수변에서 생활하는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관망대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철새 집단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생태계 보호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16일 '시민의 숲'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명명식을 갖고, 대왕참나무와 목백합 등 1000그루를 식목일 행사와 견뎌 심을 계획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 '소금박람회' 국가행사로 9월 서울서 농림부와 공동 개최

전남도가 남해안의 갯벌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늘리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오는 9월 10~12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2 소금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천일염 관련 제품 홍보를 위해 참가기업 전시

관을 설치하고 수출 및 구매상담회를 운영한다. 또 건강한 소금 섭취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식품명인과 전통음식 만들기, 염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 밖에 관람객들에게 갯벌 천일염을 활용한 음식 등을 소개하

는 '2012 우수급식 및 외식산업전'과 함께 개최한다. 한편 이 박람회는 지난해까지 광주시와 공동으로 신안 증도의 염전관광에서 열렸는데, 올해부터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

전남과학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지원자격, 전형일정, 제출서류, 기타사항.

못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전통 침·뜸·부항 무료 공개강좌 & 수강생모집. 중국 중의약대학과 18년간 학술교류로 체계화된 교육과정.

공무원 대 출, 공무원 특별자금. 무방문·무담보·무보증·무조회기록. 대출대상, 대출금액, 대출금리.